

[신리성지]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평야6로 135

전화 : (041)363-1359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신리 성지는 지금은 말끔하게 단장되었지만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구불구불한 길에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어 택시 기사나 주민들에게 물어 물어 찾아가야만 했다.

20-30평 정도 됴직한 자그마하고, 낡은 함석지붕으로 인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공소 건물이 철조망에 둘러싸여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이곳이 바로 손자선 토마스(孫--，?-1866년) 성인의 생가이자 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인 다블뤼 안(Daveluy, 安敦伊, 1818-1866년) 주교가 머물며 내포 지방의 선교활동을 지휘하던 주교관이자 교구청이었다. 마당에는 순교 복자 기념비와 성모상이 그 허전함을 달래주었다.

‘천주강생 1815년’에 지어진 이 생가는 박해시대 이래로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고 그 구조 또한 개조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1866년의 병인박해 때 다블뤼 주교를 비롯한 여러 신부들이 체포되기 전에 피신한 이곳에는 거의 기적적으로 당시의 유물들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원래 초가집이었던 생가가 해방 후 양철 지붕으로 개량되었고, 1964년부터는 강당 형태로 개축되어 공소로 사용되었으나 본당 중심의 사목이 강화되면서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조선 교구 제5대 교구장을 지낸 다블뤼 주교는 1845년 7월 하순 상해로 가서 한국 교회 최초의 방인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金大建, 1821-1846년) 신부와 함께 그 해 10월 12일 전라도 강경의 황산포(黃山浦)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그는 1866년 병인박해의 와중에 순교하기까지 21년 동안 조선의 선교사로 활약, 당시 가장 오랫동안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되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한국 천주교회사와 조선 순교사의 편찬이었다. 그는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교구장으로부터 위촉받아 1857년부터 새 자료를 발굴해 프랑스어로 옮기고 목격 증인들을 찾아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는 데 힘썼다.

특히 1859년을 전후해 그는 윤지충 바오로(尹持忠, 1759-1791년) 등 주요 순교자들의 전기를 파리 본부로 보내는 한편, 조선 천주교회사의 편찬을 위해 조선사에 관한 비망기와 조선 순교사에 관한 비망기를 저술해 1862년 모두 파리로 보냄으로써 후세의 귀중한 사료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1863년 그의 집에 불이 나 조선말과 한문으로 된 “치명일기”와 주석책 등 귀중한 자료들이 모두 타 버렸기 때문에 이 책은 한층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바로 신리의 주교관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순교사 및 역사 자료 7권이 1862년 10월 홍콩의 리부아 신부를 통해 파리로 전해져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 두 권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다블뤼 주교는 연풍 출신의 성 황석두 루카와 함께 신리에서 “영세대의”(領洗

大義), “성찰기략”(省察記略), “신명초행”(神命初行), “회죄직지”(悔罪直指),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問答), “천주성교예규”(天主聖敎禮規) 등과 같은 수많은 교회서적들을 집필하고 출판했다. 이처럼 신리는 한국 교회사의 귀중한 보고이자 최초의 근대적 출판 인쇄가 시작된 곳이다.

이 집에는 다블뤼 주교가 체포되기 바로 전날인 1866년 3월 10일 고향의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보낸 눈물겨운 최후의 편지가 기념으로 액자 속에 끼워져 있다. 이 편지는 만주의 베롤(Verolls, 方) 주교에게 보내 프랑스에 있는 부모에게 전달하게 한,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올린 글(上書)이었다.

그는 1866년 베르뇌 주교에 이어 3월 11일 신리에서 1km 떨어진 거더리에서 붙잡혀 한양으로 압송되어 옥중에서 갖은 고문을 받고, 충청남도 보령의 수영(갈매못 해변)으로 이송되어 3월 30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 참수되었다. 베르뇌 주교를 도와 9년 동안을 부주교로서 그리고 주교의 순교 후 조선 교구의 제5대 주교가 된 지 21일 만에 장엄하게 순교한 것이다.

그 후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복자위에 올랐고, 1984년 5월 6일에는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되었다.

이토록 유서 깊은 신리 순교사적지는 2002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파견되면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전교구는 2003년 말 다블뤼 주교가 쓰던 옛 주교관(손자선 성인 생가)을 교회사적 고증을 거쳐 본래의 초가집으로 복원하고, 2004년 성역화를 본격화하면서 기념성당의 첫 삽을 뜨고 부지매입과 진입로 확장,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거쳐 2006년 5월 6일 2년 가까운 공사 끝에 완공한 성 다블뤼 안토니오 · 성 손자선 토마스 기념성당 및 사제관과 복원된 주교관에 대한 축복식을 가졌다.

2008년 12월 22일에는 ‘당진 신리 다블뤼 주교 유적지’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176호로 등록되었고, 2009년 기념성당 외벽에 순교자들의 부활을 주제로 대형 부조상을 설치하고 다음해 7월말 야외성당(다블뤼 광장)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2013년 4월 20일 신리 성지 내에 성 다블뤼 기념관과 순교자 기념공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4년 5월 6일 다블뤼 주교 시성 30주년을 기념해 봉헌식을 가졌다. 지하 2층 지상 4층의 성 다블뤼 기념관은 다블뤼 성인의 유품과 교회서적등을 전시하고 있고, 기념공원에는 신리 성지에서 잡혀간 다섯 성인을 기리는 야외 경당을 봉헌하였다.

2017년 3월 25일에는 성 다블뤼 기념관 지하 2층에 국내 유일의 순교미술관을개관하였다.원로 한국화가인 이종상 요셉 화백이 신리 교우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성직자와 순교자들의 행적을 그린 순교 기록화 13점과 신리 성지 출신 순교성인 5위의 영정을 우리나라의 전통 채색 기법과 초상화 기법으로 제작해 봉헌하였다.[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23년 8월 1일)]

성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1818-1866년)

성 마리 니콜라 앙토안 다블뤼(Marie Nicolas Antoine Daveluy) 주교의 세례명은 안토니우스(Antonius, 또는 안토니오)이고, 한국명은 안돈이(安敦伊)이다. 그는 1818년 3월 16일 프랑스 아미앵(Amiens)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그 당시 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정답게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덕행의 꽃을 피웠던 집안이다. 부모는 그의 역세고도 침착하지 못한 성격을 고치려고 다소 완고한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그는 사제직에 뜻을 두고 1834년 10월 파리(Paris) 교외의 잇시(Issy) 신학교에서 입학하여 2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였다. 이어 1836년 10월 파리 생 쥘피스(Saint Sulpice) 신학교에 진학하여 5년 동안 신학을 배운 다음 1841년 12월 18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사제 서품 후 르와예(Roye) 본당의 보좌신부로 20개월 동안 사목하다가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전교신부로서의 뜻을 펼치기 위해 1843년 10월 4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 극동 선교사로 임명되어, 2월 20일 브레스트(Brest) 항구를 출발하여 8월 24일 외방전교회의 마카오 대표부에 도착하였다. 그때 마침 제3대 조선 교구장에 임명되어 조선으로의 입국을 시도하고 있던 페레올(Ferreol, 高) 주교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선 선교사를 지원하였다. 그는 페레올 주교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 1845년 8월 초 상해로 가서 8월 17일 금가항(金家巷) 성당에서 거행된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의 사제 서품식에 참석한 후, 8월 24일 상해에서 30리 떨어진 횡당(橫塘) 소신학교에서 첫 미사를 집전한 김대건 신부를 보좌하였다. 그리고 8월 31일 페레올 주교, 김대건 신부와 함께 상해를 출발하여 어려운 항해 끝에 10월 12일 저녁 8시경 충남 강경 부근 황산포(黃山浦)에 상륙하였다.

이때부터 1866년 3월에 순교하기까지 21년 동안 그는 당시 가장 오랫동안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조선의 언어와 풍습에도 능통하게 되었다. 조선에 입국한 이듬해인 1846년부터 전교활동을 시작한 그는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백여 명의 교우들을 돌보았고, 1846년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자 일단 활동을 중단하고 습기가 심한 불결한 방에 숨어 살았으며, 그러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 1848년 박해가 뜸해지자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전교활동을 시작하여 1850년에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 이에 페레올 주교는 다블뤼 신부로 하여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전교활동을 금하였고, 그래서 그동안 다블뤼 신부는 신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틈틈이 “나선소사전”(羅鮮小辭典)을 편찬하는 등 교우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신심서 및 교리서를 번역 저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교 요리 문답”(聖敎要理問答), “천주 성교 예규”(天主聖敎禮規), “천당직로”(天堂直路) 등의 번역서라든가, “신명초행”(神命初行), “회죄직지”(悔罪直指), “영세대의”(領洗大義), “성찰기략”(省察記略) 등의 저서들은 모두 그의 노력에 의한 것들이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사와 순교사의 정리는 그의 두드러진 업적들 중의 하나이다. 조선 교회사 편찬을 위해 조선사에 관한 비망기와 조선 순교사에 대한 비망기를 저술하여 모두 1862년 파리(Paris)로 보냄으로써 후대의 귀중한 사료가 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달레 신부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저술했기 때문이다.

그는 1861년에는 경상도 지방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1865년부터는 내포 지방에서 전교활동을 시작했었는데, 1866년에 병인박해가 더욱 가혹해져 마침내 같은 해 2월 23일에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가 잡혀 3월 7일 참수 치명하였다. 그래서 보좌주교였던 그가 주교직을 계승하여 제5대 조선 교구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곧 체포되어 당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던 위앵(Huin, 閔) 신부와 오메트르(Aumaitre, 吳) 신부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

다. 서울 의금부에 갇힌 다블뤼 주교는 심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훌륭한 호교론을 펴고 했다. 그러나 3월 23일 그가 사형에 처해질 것이 결정되어 충청도 보령(保寧) 수영(水營)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죄수복을 입고 고문으로 상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송되는 도중, 처형 예정 날짜인 3월 30일 성 금요일에서 처형일이 다소 연기될 기미가 있음을 알고 “성 금요일에 죽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의 소원대로 3월 30일에 성 금요일에 다블뤼 주교는 사형을 받게 되었다. 처형이 시작되자 맨 먼저 다블뤼 주교가 칼을 받았다. 이때 희광이들이 다블뤼 주교의 목을 칼로 한 번 내리친 다음 그대로 버려둔 채 처형의 품삷을 흥정하기 위해 한참동안 꾸물거리다가, 흥정이 결정되자 다시 다블뤼 주교의 목을 두 번째 내리쳤다고 한다. 그 후 그의 시신은 얼마동안 군문효수되었다가 교우들의 손에 의하여 홍산 땅에 안장되었다. 현재 그의 유해는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 지하성당에 모셔져 있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성 손자선(孫--) 토마스(?-1866년)

성 손자선 토마스는 충청도 덕산군 홍주면 신리 마을 거더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3대째 천주교를 믿는 열심한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형과 아버지는 1868년에 순교하였고, 그의 당숙 손 니콜라우스(Nicolaus)도 순교하였다. 본래 부지런하면서도 성품이 침착한 그는 나무랄 데 없이 신심이 두텁고 명성이 높았으며, 자기 부인과 함께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을 만큼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내포 지방을 중심으로 전교했고, 순교 자료를 모아 성직자들에게 전하였으며, 그의 집에서 모든 공소 예절을 하였다.

1866년 드디어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포졸들이 손 토마스가 살고 있는 거더리 마을에 들어와 신자 집을 샅샅이 뒤져 많은 물건을 빼앗아 가면서, “손씨 집안에서 누구든 사람을 보내 몰수된 물건을 찾아가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고 용감한 손 토마스가 자진하여 덕산 관가에 나가서 찾아온 사유를 밝혔다. 이 때 원님이 그에게 천주교인인지 묻자, 그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임을 밝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관가에서 갇은 고문으로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애썼으나 모두 허사였고, 곤장을 치다 못해 다리를 묶어 거꾸로 매달았다. 그리고는 토마스의 입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쏟아 부으면서 그때마다 “야, 좋지” 하고 놀려댔다. 손 토마스가 “좋습니다.”라고 응수하자 “그래 무엇이 좋단 말이나?” 하고 되물었다. 이때 손 토마스는 “나는 오늘까지 며칠을 두고 세수를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씻어 주고 있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를 흘리게 한 죄인에게는 이같이 좋은 일이 없으며, 또한 목이 몹시 타었는데 쓸개와 식초 대신 이런 것들을 내 입에 넣어주니 나는 마치 내가 범한 죄들을 마셔버리는 듯해서 무척 즐겁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 후 덕산 원님은 손 토마스를 해미로 압송하였고 해미에서는 더 심한 형벌이 가해졌다. 두 무릎 사이에 몽둥이를 끼워 양쪽에서 틀자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졌다. 이 참혹한 형벌에도 태연히 버티는 그의 모습이 더욱 가증스러워 더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공주로 압송하였다. 공주에서 원님은 특수한 수단을 생각하여 “네가 배교하지 않는다는 증표로써 이빨로 너의 손 살점을 물어뜯어 보아라.”고 하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이빨로 손등을 물어뜯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관헌은 배교한다는 고백을 받기 위해 세 번씩이나 곤장을 쳤으나 그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성 손자선은 1866년 부활 전날인 3월 31일 공주 감영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성 오메트르 베드로 신부(1837-1866년)

성 피에르 오메트르(Pierre Aumaitre) 신부의 세례명은 베드로(Petrus)이고 한국 성은 오(吳)이다. 그는 1837년 4월 8일 프랑스 앙굴렘(Angoulême) 교구 뤼페크(Ruffec) 본당의 에제크(Aizecq)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조그만 농지를 경작하며 신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꾸려갔는데, 모두 5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오메트르가 성실은 하였지만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는 못하여 그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가 사제가 되고자 했을 때 본당신부는 그의 성품에는 감동했지만 성적을 보고는 반대했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그는 소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공부의 부족함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등생이 되기까지 하였다. 그는 1857년 10월에 앙굴렘 대신학교에 진학했고, 1859년 8월 18일에 소품자(小品者)로 파리 외방전교회의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1862년 6월 14일에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자신의 전교지가 조선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 조선 입국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는 중국 어선으로 연평 바다를 거쳐 비교적 무사히 조선 땅을 밟게 되었는데, 이때가 1863년 6월 말이었다. 조선에 입국한 오메트르 신부는 우선 1개월 동안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와 함께 서울에서 지낸 후, 용인의 손골(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로 내려가 조선말을 익혔다. 그 후 1864년 9월에는 경기도의 한 구역을 맡아 사목하였다.

입국한 지 2년 남짓 지났을 때 박해의 소문이 나돌았고, 베르뇌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인 1866년 당시에 그는 수원(水原)의 샘골(泉谷里)에 있었다. 여기서 오메트르 신부는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를 만나기 위해 일단 교우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면서, 미사 예절용 물건들을 모두 감추고 다블뤼 주교가 있는 신리 마을로 갔다. 이것은 오메트르 신부가 교우들에게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해서 다블뤼 주교의 집에 있던 포졸들은 다블뤼 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부들도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포졸들은 주교를 위시하여 위앵(Huin, 閔) 신부와 오메트르 신부를 홍주 옥으로 일단 끌고 갔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하여 투옥시켰다. 문초를 받는 동안 주리 틀림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고백하였기에, 결국 오메트르 신부를 포함한 세 선교사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2백 50리나 떨어진 충청도 보령 수영(水營)의 갈매못 사형장으로 끌려가 1866년 3월 30일 참수 치명하였다. 바로 그 날이 성 금요일 주님의 수난일로 그들이 처형된 시간이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었다고 전해온다. 그때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성 위앵 루카 신부(1836-1866년)

성 마르티노 루카 위앵(Martin Luc Huin) 신부의 세례명은 마르티누스 루카(Martinus Lucas)이며, 한국 성은 민(閔)이다. 그는 1836년 프랑스 랑그르(Langres) 교구의 기욤벨

(Guyonville)에서 태어났다. 포도밭을 경작하던 그의 부친은 항상 그의 가문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많이 배출되었음을 자랑하면서 9남매가 모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막내로 태어난 위앵은 1851년에 랑그르 소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856년 10월에 랑그르 대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861년 6월 29일 사제로 서품되어 랑그르 교구의 사제가 되었다.

그 후 그는 므레(Melay)와 부아제(Voisey)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활동하면서도 선교사제의 꿈을 키우다가 마침내 1863년 8월 20일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고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다. 그리고 1864년 6월 13일에 자신이 전교해야 될 지방이 조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기뻐하며 부모님에게는 물론 옛날 본당 신부님에게도 편지를 썼다고 한다.

1864년 7월 15일 위앵 신부는 브르트리에르(Bretenieres, 白) 신부, 불리외(Beaulieu, 徐沒禮) 신부, 도리(Dorie, 金) 신부와 함께 전교지인 조선을 향해 파리(Paris)를 떠나 홍콩, 상해를 거쳐 1864년 11월 만주의 차쿠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조선과의 연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문과 조선어 공부를 하며 그 해 겨울을 지냈다. 그 이듬해인 1865년 5월 27일에 비로소 위앵 신부는 일행과 함께 충청도 내포 지방에 상륙하여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의 환영을 받으면서 조선에 입국하였다.

도착 후 위앵 신부는 6월 18일까지 다블뤼 주교와 함께 내포 지방에서 조선어 공부를 하며 지내다가, 그 후에는 내포 지방에서 20리쯤 떨어진 당진 합덕 지방의 세거리 공소로 떠났다. 위앵 신부는 1866년 2월에 벌써 교우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신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 위앵 신부는 박해 직전까지 5백여 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15명 내지 20명에게 병자성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교우들에게 혼인성사도 집전해 주었다.

1866년 3월 12일 그는 다블뤼 주교의 편지를 받고 순순히 체포되어 다블뤼 주교, 오메트르(Aumaitre, 吳) 신부와 함께 3월 19일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1866년 3월 30일 보령 수영 갈매못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다.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내 마음에 아픈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토록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도 아니요, 이곳과 같은 처절한 장소에서 죽게 된 때문만도 아니라, 이 나라 불쌍한 백성들의 구령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되니 그것만이 마음 아플 뿐이요.” 그의 유해는 현재 절두산 순교 기념관 지하성당에 모셔져 있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성 황석두(黃錫斗) 루카(1813-1866년)

성 황석두 혹은 황재건이라고도 하는 루카(Lucas, 또는 루가)는 충청도 연풍의 어느 양반 집안에서 삼대독자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가문을 화려하게 번영케 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열심히 글공부를 시켰고,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도 역시 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20세가 되던 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였는데, 그가 묵은 어느 주막에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 성교회의 도리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천주교 교리책을 여러 권 얻어 가지고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부친에게로 되돌아갔다.

부친은 아들이 되돌아 온 이유를 알자 분노가 치밀어 아들을 마구 때리고 급기야는 작두를 마당 가운데에 놓고 아들의 목을 작두에 걸게 하였다. 그러나 황 루카가 태연히 목을 내밀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친의 책망과 모진 매질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는 2년 이상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병어리처럼 살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루카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천주교 교리책을 한번 읽어 보시라고 설득하니, 이때부터 온 집안이 교리를 배워 영세 입교를 서두르게 되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비신자들까지도 루카의 신심과 열성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그의 훌륭한 예의범절에 감탄하여 마지않았다.

그때 페레올(Ferreol, 高) 주교가 조선에 입국하자 루카는 성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칠 것을 주님께 서약하였고, 페레올 주교는 처와 별거한다는 조건 하에 루카를 사제품에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교황청에서 당시 조선 땅에는 여자 수도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 후 페롱(Feron, 權) 신부의 한문 선생 겸 전교회장 일을 맡아 수행하던 황 루카는 또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를 돕게 되었다. 그는 주교와 함께 “회죄직지”를 위해 원고를 썼고,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를 도와 번역 출판과 그 교정에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 포졸들이 다블뤼 주교를 잡으려고 몰려오자, 다블뤼 주교는 루카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루카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까지 주교님을 모셔온 제가 피신하다니 될 말입니까? 그래, 주교님은 혼자 천당 가시려는 심사인가요?”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주교와 신부들과 함께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윽고 그는 1866년 3월 23일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다블뤼 주교와 다른 두 신부들과 함께 보령 갈매못으로 끌려가서 참수형을 받아 치명하였다. 이때가 1866년 3월 30일이요, 그의 나이는 54세였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출처 : 이상 가톨릭 성인사전]

[합덕성당]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성당2길 22

전화 : (041)363-1061

내포 지방은 예로부터 충청도 지역 교회의 중심지였다. 합덕 본당은 바로 이 내포 평야에 복음을 밝힌 지 120여 년이 넘어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 된 유서 깊은 본당이다. 합덕 성당 인근에는 손자선 토마스(?-1866년) 성인의 생가이자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년) 주교의 주교관으로 사용되었던 초가집 주변에 조성된 신리 성지가 있고, 옛 동헌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면천 사적지도 자리하고 있다. 합덕 삼거리에서 서야 고등학교 방면으로 조금 올라오다 보면 길 오른쪽 낮은 언덕 위에 마치 두 팔을 들어 환영하듯 두 개의 첨탑이 우뚝 서 있는 합덕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두 개의 첨탑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며 고딕 양식으로 1929년에 건립된 유서 깊은 성당이다.

합덕 성당의 전신은 1890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에 설립된 양촌 성당으로, 퀴틀리에(Curlier, 南一良, 1863-1935년)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였고, 1899년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합덕 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의 성당 건물은 1929년 제7대 주임인 페랭(Perrin, 白文弼, 1921-1950년 재임) 신부 때 준공된 것으로, 페랭 신부가 6.25 때 체포되어 순교한 슬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페랭 신부 재임 때인 1926년 예산 본당, 1935년 서산 본당, 1938년 당진 본당이 각각 분리 신설되었고, 1961년 제8대 박노열 바오로 신부 때 신허덕 본당이 분리되면서 합덕 본당은 구합덕 본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1997년 다시 본

래의 이름인 합덕 본당으로 변경되었다.

성당 정면으로 난 계단에 올라 도톰한 언덕배기를 바라보면 빨간 벽돌과 두 개의 첨탑으로 세워진 성당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계단 왼쪽으로는 성모동산이 조성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성당 정면에서 신자들을 반기는 예수성심상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돌면 초가지붕 아래 설치된 본당 주보(主保)인 성가정상과 함께 너른 잔디광장이 펼쳐진다. 광장을 지나 성당 뒷마당으로 내려가면 야외제대와 또 하나의 잔디광장 그리고 성 황석두 루카(黃錫斗, 1813-1866년)와 6.25 순교자인 페랭 백문필 신부, 윤복수 라이문도 총회장, 송상원 요한 복사의 순교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양들을 위해 끝까지 성당에 남은 백 신부는 1950년 8월 14일 고해성사 중에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피살되었고, 윤 회장과 송 복사 또한 백 신부의 곁을 지키기 위해 자진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합덕 본당은 30년간 본당에 재임하다가 6.25 때 순교한 백문필 신부를 기념해 1957년 성당 옆에 ‘백 비리버 문필 신부 순교비’를 건립하였고, 함께 순교한 두 평신도의 순교비는 2005년 본당 설립 115주년과 순교 55주년을 맞아 그 옆에 나란히 세웠다. 그리고 순교비 옆에는 이 지역의 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했던 백 신부를 포함한 네 명의 신부 묘소(유해는 2003년 대전가톨릭대학교 내 성직자 묘지로 이장하였다)와 백 신부와 함께 순교한 회장과 복사의 묘소를 조성하였다. 백 신부와 함께 순교한 두 평신도의 묘소에는 유해 없이 유물만 묻었다. 현재는 순교비와 묘소 모두를 성당과 구 사제관 사이 뒷마당, 야외제대 옆으로 옮겨 모셨다.

내포 교회 가운데서도 유서 깊은 공동체인 합덕 성당은 1998년 7월 28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성당 구내에 당진시와 함께 합덕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신앙인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본당 설립 120주년을 기념해 2월 21일 모태인 양촌 공소에 기념비를, 4월 12일 성당 내에 착한 목자 백문필 필립보 신부 흉상을, 12월 25일 성당 초입에 120주년 기념비를 건립해 제막식을 가졌다. 이어 2014년에는 성당 옆에 있는 구 사제관 복원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듬해 성당 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또한 성당 입구를 정비하여 주차공간을 대폭 확장했다. 2018년에는 성당 마당에 12개의 종을 단 종탑을 설치해 오랜 세월 신자들과 함께 했던 종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였다. 2020년에는 본당 설립 130주년을 기념해 필립 페랭(백문필 필립보) 신부 공원을 조성해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서해안에 인접한 합덕과 면천 지역은 주위에 많은 사적지와 명소들이 분포되어 있다. 홍성 · 해미 · 솔미 · 신리 성지 등이 근접해 있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들 중 하나를 연결해 함께 순례할 수도 있다. 또 덕산 도립공원과 온양 · 도고 · 덕산 온천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여름이면 만리포 · 몽산포 ·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도 인파가 붐빈다.

합덕 유스호스텔(현 성가정 순례자의 집)은 인근 성지와 연계한 도보순례길 등을 통해 순교신심을 고양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근의 역사 유적과 문화 관광지를 탐방하는 가족 나들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늘도 성당 마당 잔디 위에 앉아 소박한 웃음꽃을 피우는 신자들의 모습은 그 옛날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 오던 당시의 조심스런 몸짓들을 역설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 번 순교자들의 피로 닦은 신앙의 터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한다.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23년 8월 2일)]

[황무실 성지]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013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굴미2길 40)

전화 : (041)362-5947 , (041)363-5947

황무실은 당진시와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한 얇은 구릉 지대에 있는 유서 깊은 교우촌으로, 1791년 윤지충 바오로(1759-1791년)의 진산사건으로 촉발된 신해박해 이전부터 1868년 5월 오페르트(E. Oppert)의 남연군묘(南延君墓) 굴총사건으로 촉발되어 내포에서 2천 명에 가까운 신자가 해미 등지에서 순교한 무진박해까지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다. 또한 신리 교우촌과 더불어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거주하며 사목활동을 한 내포교회의 중심지로 고증되었다.

대전교구 초기 공동체 중 하나인 황무실 인근에서 살다 1793년 1월 28일 홍주 옥에서 동사형(凍死刑)으로 순교한 원시장 베드로(1732-1793년), 1799년에 홍주 형장에서 참수 순교한 방프란치스코(?-1799년)와 박취득 라우렌시오(1769?-1799년) 등은 장렬한 순교를 통해 대전교구 초기 공동체에 영적 영감과 감화를 주었다. 그 후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병인박해(1866년), 무진박해(1868년) 등 내포 전역을 휩쓴 무서운 박해 중에도 황무실 신앙 공동체는 계속 보존되었다.

1852년 조선에 잠입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스승인 메스트르(Maistre, 1808-1857년) 신부는 1853년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 페레올(Ferreol) 주교가 선종하고 1856년 새 교구장으로 성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 주교가 입국하기까지 조선교구의 장상직을 맡으며 고아 사업과 배론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 베르뇌 주교의 지시로 충청도 내포 황무실을 중심으로 교우촌을 맡아 사목하던 메스트르 신부는 1857년 12월 20일 과로로 쓰러져 덕산 황무실에 묻혔다. 그의 장례식에는 박해 시대인데도 3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였다고 전해진다.

성 베르뇌 주교는 조선 교회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충청도 홍주 지방을 ‘성모 성탄’ 공동체로 지명하여 1857년에 조선교구 부주교로 성성된 성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 주교에게 맡겼다. 당시 홍주(洪州) 지역 교회 공동체의 중심지는 황무실이었다.

현재 성지에는 순교자현양비 외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1861년 조선 입국에 성공한 랑드르(Landre, 洪, 1828-1863년) 신부는 베르뇌 주교로부터 충청도 내포 지방으로 파견되어 한수 이남을 관할하던 다블뤼 주교의 명령에 따라 황무실에 근거지를 두고 전교 활동을 하던 중 1863년 봄 중병을 얻어 9월 16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황무실에서 선종하여 그곳에 묻혔다.

프랑스 랑그르 교구 출신의 성 위앵(Huin, 閔, 1836-1866년) 신부는 1865년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로 백, 김, 서 신부와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다. 충청도 내포에 머물며 다블뤼 주교에게 한국말을 배운 뒤 황무실에 부임하여 전교하였다. 1866년 3월 11일 다블뤼 주교가 체포되자 자수하여 다블뤼 주교, 오메트르(Aumaitre, 吳, 1837-1866년) 신부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고, 갇은 고문을 겪은 뒤 3월 30일 갈매못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음으로써 30세의 나이로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

위앵 신부는 1865년 6월 18일 성체 성혈 대축일까지 신리 성지의 다블뤼 주교와 함께 있었다. 그런 다음 주교가 계신 곳에서 십 리 떨어진 황무실 교우촌으로 갔다. 위앵 신부는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다. “이것이 제 성체거동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유럽에서 당신들의 그

화려한 예절에 참석한 것보다도 더 기뻐합니다.”

신리 성지는 삽교천과 무한천이 아산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내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의 생가가 있는 여사울 및 덕산 황무실, 솔피 등 초기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던 곳과 연계하여 위치하고 있다. 충청도 서부 지방의 천주교 신앙 공동체는 수로를 통해 이어졌고, 신리를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1890년 8월 조선교구장 직무대행인 코스트(Coste, 高宜善, 1842-1896년) 신부는 황무실 공동체에서 뻗어 나간 양촌(예산군 고덕면 상궁리)에 본당을 설립하여 퀴를리에(Curlier, 南一良, 1863-1935년) 신부에게 맡겨 충청도 남쪽과 동쪽을 관할하게 하고, 예산군 간양리에 본당을 설립하여 파스키에(Pasquier, 朱若瑟) 신부에게 맡겨 충청도 북쪽과 서쪽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1868년 해미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낸 무진박해 이래 22년 만에 2개의 본당을 충청도에 설립하였다.

‘황무실’은 달레 교회사나 관변문서에서 소위 ‘덕산’ 또는 ‘홍주’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박해 시대에 황무실은 홍주목 덕산현 관할지로 면천군과 범천면(솔피)과 인접해 있었다. 사리 때 바닷물이 만수가 되어 삽교천 구만포까지 배가 올라올 수 있을 때는 홍주나 덕산 사람들이 배로 아산만과 서해를 거쳐 한강을 따라 서울 서강까지 왕래했다. 하지만 조금 때 바닷물이 삽교천에 적게 들어오면 홍주나 덕산 사람들이 황무실을 거쳐 현재 삽교천 방조제에 인접한 남원포까지 걸어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서울을 오갔다. 그래서 황무실은 한양 교우들의 소식을 전해 듣기 쉬운 길목이었다. 황무실 교우촌은 병인박해로 철저히 파괴되고, 이웃한 면천 출신과 합쳐 70여 명에 이르는 순교자가 탄생했지만, 서서히 역사 속에 묻혔다. 그러다가 신합덕 성당 신자들이 메스트르 신부와 랑드르 신부의 묘소를 찾았고, 1970년 이전까지 합덕 교우들은 솔피 성지처럼 황무실을 신앙 선조들의 고향으로 생각해 자주 순례하며 선교사제와 교우들의 묘지를 보살폈다. 1970년 4월 30일 메스트르 신부와 랑드르 신부의 묘를 합덕 성당으로 이장하면서 황무실은 교우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돌보지 않는 순교사적지가 되었다. 지금은 성물(십자고상, 묵주)을 간직한 무명 순교자 또는 신자들의 묘지가 사적지를 지키고 있다. 황무실은 외교인의 가족묘역으로 변해 비신자의 소유지가 되었다. 합덕 성당으로 모셨던 두 선교사제의 묘는 2003년 4월 11일 대전가톨릭대학교 내의 성직자 묘지로 다시 이장되었다.

황무실 순교사적지는 2008년 8월 15일 대전교구 청소년대회를 시작하며 실시한 도보 성지순례 출발지 중 하나로 선정되고, 2014년 8월 16일 이곳 출신 이보현 프란치스코(1773-1800년) 순교자의 시복을 계기로 성지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신합덕 본당은 해미에서 순교한 이보현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옛 황무실 교우촌 부지를 매입해 4m 높이의 자연적으로 순교자 현양비를 세우고 성지 개발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9일 충남 당진 합덕읍 석우리 1013 현지에서 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황무실 성지 및 순교자 현양비 축복 미사를 봉헌했다. [대전교구 홈페이지의 소개글과 관련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편집(최종수정 2018년 7월 10일)]

복자 원시장 베드로(1732-1793년)

원(元)시장 베드로(Petrus)는 1732년 충청도 홍주 응정리(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몇 해가 지난 1788-1789년 무렵, 곧 56-57세가 되었을 때, 사촌 형인 원시보 야고보와 함께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다. ‘시장’은 그의 관명(冠名)이다.

어느 날 원 베드로는 집을 떠나 1년 이상 다른 지방에 가서 생활하면서 교리를 공부하였다. 그동안 그는 ‘천주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목숨을 보전해 주는 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은총이 그의 설명에 힘을 보태 주었고, 친척과 친구들은 마음이 움직여 하느님을 믿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때까지도 그는 세례를 받지 못하였었다.

본디 원 베드로의 성격은 사납고 야성적이어서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그러나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동안 성격이 변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온화함을 보여 주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이웃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키는 데 열중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은 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관장은 포졸들을 보내 원 베드로와 원 야고보를 체포해 오도록 하였다. 이때 사촌인 원 야고보는 친구들의 권고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으나, 원 베드로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홍주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내 원 베드로는 홍주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 문초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관장의 어떠한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천주를 배반하거나 동료들을 밀고할 수 없으며, 교회 서적이 있는 곳도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관장은 화가 나서 형리들에게 주리를 틀고, 치도곤 70대를 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하느님과 부모님께 대한 본분과 천주교의 참된 도리를 설명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 달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원 베드로는 자주 끌려 나가 배교를 강요당하고 형벌을 받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포졸과 형리들에게 전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우가 그를 만나러 옥으로 찾아왔고, 이때 원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홍주 관장은 감사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감사에게서 ‘원시장을 때려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관장은 다시 원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갇은 형벌을 가하였지만, 한결 같은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관장은 마지막으로 혈육의 정에 호소해 보기로 하였다. 원 베드로를 기다리고 찾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천주께서 친히 저를 부르시니, 어찌 그 목소리에 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주 관장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음식을 가져다주도록 하고는,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도록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관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한 끝에, 그의 몸에 물을 붓고 밖에 내다 놓아 얼어 죽게 하라고 명하였다.

원시장 베드로가 덮어쓴 물은 이내 얼음으로 변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오로지 주님의 수난만을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목숨을 하느님에게 바쳤으니, 그때가 1793년 1월 28일(음력 1792년 12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원시장 베드로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성 위앵루카신부 === 신리성지 참조****

복자 원시보 야고보(1730-1799년)

원(元)시보 야고보(Jacobus)는 충청도 홍주 응정리(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의 양인(良人) 집안 출신이다. 그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몇 해가 지난 1788-1789년 무렵, 곧 그의 나이 60세가 다 되어서야 사촌 동생 원시장 베드로와 함께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입교하였다. ‘시보’는 그의 관명(冠名)이다. 본디 성품이 어질고 순하며 정직하고 활달하였던 야고보는, 입교하자마자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며 온갖 덕행을 실천하였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산을 희사하였고,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였으며,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은 점차 인근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홍주 관장은 포졸들을 보내 곧장 원 야고보와 사촌인 원 베드로를 체포해 오도록 하였다. 이때 원 야고보는 친구들의 권고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으나, 원 베드로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갖가지 혹형을 받은 뒤, 1793년에 순교하였다.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원 야고보는 사촌과 함께 순교의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1795년 무렵, 원 야고보는 주 야고보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첩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주 신부에게 성사를 받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바로 첩을 내보냈다.

이로부터 2년 후에는 정사박해가 충청도 전역을 휩쓸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원 야고보도 1798년에 체포되어 덕산 관아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68세였다. 그러나 그는 갖가지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천주를 섬기고 제 영혼을 구하고자 천주교를 봉행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런 다음 홍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덕산으로 끌려와 몹시 두들겨 맞았으며, 형벌로 인해 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1799년 원 야고보는 감사의 명령에 따라 병영(兵營)이 있던 청주로 이송되었다. 그가 덕산을 떠나는 날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이 울면서 따라오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네. 모든 고통을 참아 낸다면,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착하신 동정 마리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네. 그대들이 여기에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니 돌아가게. 이성을 잃고 대사(大事)를 그르칠 수는 없네.”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원 야고보는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 문초를 당하였다. 관장은 그를 배교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순교의 원의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덕산에서 이미 두 다리가 부러졌던 원 야고보에게 다시 온갖 혹형이 가해졌으며, 그는 결국 이를 이겨 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때가 1799년 4월 17일(음력 3월 1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9세였다. 원시보 야고보가 순교한 뒤 그의 육체는 이상한 광채에 둘러싸인 것 같았으며, 이 광경을 목격한 50가족가량이 천주교에 입교하였다고 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원시보 야고보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

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1773-1800년)

이보현(李步玄) 프란치스코(Franciscus, 또는 프란체스코)는 1773년 충청도 덕산 황모실(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의 부유한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친을 여의었다. 그는 조금 고집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후에는 어떻게나 난폭하였던지,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 없었다.

2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이 프란치스코는 고향 인근에 살던 황심 토마스에게 교리를 배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황심은 훗날 복경을 왕래한 교회의 밀사로 그의 아내는 바로 이 프란치스코의 누이였다.

진리를 깨닫고 얼마 안 되어, 이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행을 고치고 본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혼인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모친의 권유에 순종하려고 혼인을 하였다. 그런 다음 교리를 자유롭게 실천하고자 황 토마스와 함께 충청도 연산으로 이주해 살았고, 1795년에는 주 야고보 신부를 자신의 집에 모셔다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프란치스코의 열심은 날로 더해 갔다. 그는 보속과 고행에 열중한 나머지 산중에 들어가 힘들게 생활한 적도 있었다.

1797년의 정사박해로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이 프란치스코는 박해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가족과 동네 교우들을 격려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는 날마다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권면하였다.

박해가 시작된 지 한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이 프란치스코는 머지 않아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술을 대접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잔치’라고 말하였다. 과연 이를 뒤에 포졸들이 연산 땅에 나타났고, 그는 곧바로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되었다. 연산 관장은 포졸들에게 끌려온 이 프란치스코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교우들과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도록 하면서 배교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배교를 거부하고, “만물의 대군(大君)이신 천주에 대해 말한 책을 관장에게 맡길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화가 난 관장은 포졸들을 시켜 그에게 혹독한 매질을 하게 한 다음 옥에 가두었다.

얼마 뒤 이 프란치스코는 충청 감사의 명에 따라, 그의 고향 덕산을 관할하는 해미 관장에게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람들의 기원이 태초에 그들을 창조하신 천주께 있으니, 어찌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절 넘게 이 프란치스코는 갖은 고문을 당하였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옥으로 끌려간 뒤에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함께 갇힌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해미 관장은 할 수 없이 감사에게 이 프란치스코의 처분을 문의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아무 것도 자백하지 않으면 매를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보냈고, 이에 따라 그는 다시 한 번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그런 다음 관장이 사형 선고문을 내밀자, 기쁜 표정으로 거기에 서명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이 프란치스코는 장터로 끌려 나가 혹독하게 매를 맞았다. 그럼에도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망나니들은 그를 넘어뜨린 뒤, 몽둥이로 불두덩을 짓찧어 죽게 하였다.

그때가 1800년 1월 9일(음력 1799년 12월 15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며칠 뒤에 교우들이 그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토록 많은 형벌을 받았는데도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이를 직접 목격한 비신자들 여러 명이 입교하였다고 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이보현 프란치스코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조제프 암브로이즈 메스트르(Joseph Ambroise Maistre, 1808-1857년) 신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한국 선교사. 세례명은 요셉. 한국 성인 이(李). 1808년 9월 19일 프랑스 안시(Annecy) 교구 앙트르몽(Entremont)에서 태어나 톤(Thones) 중학교에서 공부한 후 1832년 6월 16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 후 위진(Ugine) 교구의 보좌 신부로 임명되어 약 7년 동안 사목하다가, 31세 때인 1839년 6월 8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다.

1840년 1월 15일 동료 베르뇌(Berneux, 張敬一) 신부와 함께 프랑스를 출발하여 9월 21일 마카오(Macao)에 도착한 메스트르 신부는, 정식 임지를 통보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임시로 마카오 주재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의 일을 임시로 도왔다. 또한 중국 신학생들과 그곳에 유학 와 있던 조선 신학생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과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한편 리브와(Libois) 신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고 1842년 2월 15일 김대건과 함께 세실(Cecille) 함장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 에리곤(l'Erigone)호에 승선하여 마카오를 출발하였는데, 그해 7월 오송(吳淞)에 도착하였으나 프랑스 측의 원정 연기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했다. 이에 그해 10월 상해(上海)로 간 메스트르 신부와 김대건은, 그곳에서 드라 브뤼니에르(de la Bruniere, 寶) 신부, 최양업 등과 합류하여 강남 대목구장 베시(Besi) 주교의 주선으로 중국 배를 타고 요동 반도의 태장하(太莊河)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입국이 불가능해 보이자 김대건과 헤어져 1844년 1월 최양업과 함께 소팔가자(小八家子)로 귀환하였다.

1846년 1월 말 최양업과 함께 만주 훈춘(琿春)을 통해 함경도 국경으로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두만강 국경 마을에서 만주 관헌들에게 체포되었으나 이틀 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다시 소팔가자로 귀환하여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메스트르 신부는, 1846년 12월 말 다시 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변문(邊門)으로 가던 중 김대건 신부의 순교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는 조선 교회에서 보낸 밀사들의 만류로 입국을 포기하고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가 이전된 홍콩으로 가서 입국의 기회를 기다렸다. 또 1847년 7월에는 라피에르(Lapierre) 함장이 이끄는 군함을 타고 최양업 부제와 조선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고군산도(古群山島)에서 배가 난파되었다. 그곳에 남아 있으려 하였지만 결국 다시 상해로 되돌아온 메스트르 신부는, 1849년 초에도 중국 배를 타고 백령도(白翎島)를 통해 조선 입국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그해 11월 요동으로 가서 12월 3일 조선 입국을 시도했으나 최양업 신부만 입국하고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 1851년 초에는 조선에서 교우들을 보내 그의 입국을 돕게 하였으나 그것 역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메스트르 신부는 육로(陸路) 또는 해로(海路)를 통해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결국 1852년 7월, 이미 1847년 고군산도에서 난파한 프랑스 군함의 잔해를 철거한다는 구실로 예수회의 엘로(Helot) 신부의 도움을 받아 서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는데, 이로써 조선 선교사를 자원하여 입국을 시도한 지 10여 년 만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입국 후 곧바로 성사 집행 및 전교 활동을 시작한 메스트르 신부는, 1853년 2월 3일 제3대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Ferreol, 高) 주교가 사망하자 임시 조선 포교지의 장상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이미 중국에 있을 때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조선에 파견 나와 있던 선교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으므로 교회법에 따라 수석 신부로서 새로운 교구장이 부임하기까지 교구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또한 그는 방인 성직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1855년에 충남 제천(堤川)의 배론(舟論, 현 충북 제천군 봉양면 구학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를 세웠다. 1856년 3월 만주교구의 보좌 주교로 활동하던 베르뇌 주교가 제4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그는 충청도 지역으로 전임되어 전교 및 사목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온화하고 양순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언제나 교우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성사 집행과 전교 활동으로 인한 과로 때문에 쓰러져 회복하지 못한 채 50세 때인 1857년 12월 20일 충남 덕산(德山)의 황무실(현 禮山郡 古德面 好音里)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메스트르 신부의 유해는 1863년 9월 황무실에서 사망한 동료 선교사 랑드르(Landre, 洪) 신부의 묘와 함께 1970년 4월 30일 구합덕 본당 경내로 이장되었다.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입국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 실제로 한국에서 사목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의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성영회(聖嬰會) 창설이 특기할 만하다. 여러 지역을 순회 전교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고아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에 대한 구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개한 성영회의 기아 구제 사업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고아 보호 운동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전개상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성영회 본부에 재정적인 원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는 우선 성영회의 창립 정신에 따라 버려져 죽어 가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어 영혼을 구제하는 한편, 고아들을 모아 독실한 여교우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였다. 또한 점차 고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교우 가정에서 맡겨 양육하게 하였고, 그들이 커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직업 알선까지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화되어 새로 입교하는 이들이 증가하였으며, 이 구제 사업도 계속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성영회의 고아 구제 사업은 메스트르 신부 사후에도 계속 전개되어 고아원으로 발전하였으나, 재정적인 어려움과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증대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출처 : 편찬실, 한국가톨릭대사전 제4권]

장 마리 피에르 엘리아생 랑드르(Jean Marie Pierre Eliacin Landre, 1828-1863년) 신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한국 선교사. 세례명은 요한. 한국 성인 홍(洪). 1828년 1월 5일 프랑스의 몽레알(Montreal)에서 태어나 26세 때인 1853년 12월 17일 오슈(Auch)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성직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던 그는 서품 후 소신학교 교사, 본당 보좌 신부 등을 거쳐 1856년 10월 5일에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다. 그 후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랑드르 신부는, 1858년 3월 21일 프랑스를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861년 4월 7

일에야 겨우 한국에 입국하였다.

압국 후 충청도의 서부 지역에 파견되어 내포(內浦) 지역을 중심으로 사목하였으나, 전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중병에 걸려,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863년 9월 16일 충청도 예산의 황무실(古德面 好音里)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는 그의 사망지인 황무실에 묻혀 있었는데, 그보다 앞서 사망한 메스트르(Maistre, 李) 신부의 묘와 함께 1970년 4월 30일 구합덕(舊合德) 본당의 경내로 이장되었다. [출처 : 이유림, 한국가톨릭대사전 제3권]

[여사울성지]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여사울길 22

전화 : (041)332-7860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李存昌, 1759-1801년)의 생가 터가 있는 여사울 순교사적지는 신례원 본당의 공소를 거쳐 2008년 성지본당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민의 상당수가 천주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 선교의 요람이다.

‘내포’(內浦)라 함은 충남 아산(牙山)에서 태안(泰安)까지의 평야 지대를 일컫는 지명으로, 삽교천(插橋川)과 무한천(無限川)의 두 물줄기가 흐르는 충남 중서부 지역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이 지역은 이존창을 비롯해 복자 김진후 비오(金震厚, 1739-1814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金大建, 1821-1846년) 신부 등 많은 순교자를 배출해 낸 곳이다.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인 솔미와 인근의 합덕, 이존창의 출생지인 여사울 등 유서 깊은 교우촌과 본당들 그리고 해미·덕산 등의 순교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해 살았다.

농민 출신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의 여사울에서 태어난 이존창은 초기 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權日身, 1742-1792년)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열렬한 신앙심과 학구심으로 초기 교회 가성직단(假聖職團)의 일원이 되어 신부로서 고향인 충청도 지방 복음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은 물론 내포 지방 일대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훗날 ‘내포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가성직 제도가 교리에 어긋남을 깨닫고 신부 영입을 위해 복자 윤유일 바오로(尹有一, 1760-1795년)와 지항 사바(池璜, 1767-1795년) 등에게 여비를 주어 중국 북경을 찾게 하여 마침내 복자 주문모 야고보(周文謨, 1752-1801년) 신부를 맞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791년 신해박해 때 그는 다른 수많은 천주교인들과 함께 관헌에게 붙잡혔다. 혹독한 고문과 가혹한 매질은 그로 하여금 배교의 쓴맛을 보게 하였다. 그 뒤 양심의 가책으로 내포 지방을 떠나 홍산(鴻山)으로 이사하여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보다 더욱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전교에 힘썼다.

그 결과 내포 지방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교세가 크게 성장했고, 이에 따라 박해 때마다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 집안도 이존창의 전교로 입교했는데, 김대건 신부의 할머니는 그의 조카딸이 되며, 최양업 토마스(崔良業, 1821-1861년) 신부도 그의 생질(甥姪)의 손자이다. 더욱이 오늘날 조선 교우의 거의가 그가 개종시킨 교우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전교 활동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다.

1795년 말에 이르러 그는 다시금 지방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고향인 천안으로 옮겨져 6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801년 다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그 해

4월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丁若鍾, 1760-1801년)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충청도의 감사가 있는 공주(公州)로 호송되어 황새바위에서 42세를 일기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내포 지역과 여사울 순교사적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전교구는 교구의 뿌리인 여사울 성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신례원 성당을 중심으로 성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진입도로를 넓히는 한편 십자가의 길과 강당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2008년 1월 성지본당으로 지정하고, 그 해 12월 22일 ‘예산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면서부터 성역화를 본격 추진하였다. 이존창의 생가 터 앞 강당 자리에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순교자 기념성당을 신축하고, 기존의 공소 건물 뒤에는 사제관과 수녀원을 건립하였다. 스페인풍의 기와를 얹은 기념성당은 2010년 10월 16일 봉헌식을 가졌다. [출처 :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14년 12월 20일)]

여사울 - 신앙의 못자리(이존창의 생가)

천안에서 예산 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신례원 삼거리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우회전하여 서해안의 합덕 쪽으로 향하다가 십 리쯤 되는 곳 오른편에서 여사울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 곳에는 현재 이존창 생가 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생가 터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두 개의 침탑으로 유명한 합덕 성당이 나오며, 성당을 조금 지나 왼편으로 십리쯤 가다 보면 신리 교우촌이 나온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유명한 사적지들을 자주 만날 수 있으니, 바로 이곳이 내포(內浦)라 불리던 충청도 교회의 요람지였다.

충청도의 복음 전파는 ‘여사울’(餘村,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서 시작되었다. 내포의 사도,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의 고향이다. 경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776년에 양근 지역의 유명한 남인 학자 권철신(암브로시오)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그러다가 권철신의 아우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과 중인 김범우(토마스)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뒤, 다음과 같이 여사울로 내려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존창은 ‘루도비코 곤자가’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하고, 자기 스승(권일신)에게서 고향에 돌아가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전교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 잠깐 동안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지식과 덕행의 평판에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저 유명한 내포 천주교회의 기초는 이렇게 다져졌다. 그때부터 내포 지방은 늘 열심한 천주교인들과 훌륭한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어 왔다(샤를르 달레, [한국 천주교회사] 상, 312면).

고향으로 돌아간 이존창의 활동은 참으로 눈부셨고, 그 결과는 곧 내포 공동체의 설립으로, 차령산맥 동쪽으로 복음이 확대되어 나갔다. 또 이존창은 한국 천주교회의 지도층에 끼여 1786년 이래 약 2년 동안 지속된 가성직제(假聖職制) 아래 신부로 임명되어 성사를 집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사울 이존창의 집은 자연스럽게 교우들의 집회소이자 숙소가 되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존창은 자주 시련과 좌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1791년의 신해박해와 1801년의 신유박해로 연이어 고통을 받게 된 그는 배교와 회두를 거듭하였다. 특히 처음 박해 때 형벌과 회유가 번갈아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게 되었고, 마침내 천주교를 요술이라고 비판하고 말았다. 교회 기록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내포 교우들에게 가장 슬프고도 가장 창피스런 배교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존창의 배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진정한 회두(回頭)가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신유박해로 서울로 압송되어 판결을 받고 공주로 이

송된 그는 4월 10일(음력 2월 28일)에 희광이의 칼을 받게 되었다. 이 때 그의 목은 여섯 번째 칼날을 받고서야 떨어졌는데, 친척들이 그의 시체를 거둘 때는 머리가 목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단지 실날같은 흉터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1984년 가을에 신레원 본당에서는 구전을 토대로 하여 여사울의 생가 터를 찾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서울 정릉 본당의 협조를 얻어 생가 터를 발굴한 결과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고상, 성모상, 성의패들이 나옴으로써 생가 터가 분명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때 발굴된 유물들은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옮겨져 보관되어 오고 있다. [출처 : 차기진, 사목, 1999년 9월호(내용 일부 수정)]

내포의 사도 이존창(李存昌) 루도비코

충청도 아산지방으로부터 태안반도에 이르는 일대의 평야를 내포평야라고 한다. 이 내포평야의 접경에 천안군 '여사울'이란 곳이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곳 여사울에서 이존창 루도비코(1759-1801년)는 농가의 양민으로 태어났다. 그는 비록 양민 신세이나 가세가 넉넉하여 집안에서 글공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타고난 재주가 비상하였고 성장하면서 변혁의 열의가 깊어져, 마침내 학문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스승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삼남지방에 그 이름이 자자하던 권일신의 형제들을 알게 되어 그의 문하에 들어가 제자가 되었다.

권일신은 젊고 총명한 농민 출신의 학자인 이존창의 자질과 품성에 이끌려 그에게 마음을 쓰고 있던 중 천주교를 신봉하게 되었다. 스승은 이 신앙의 은혜로움을 제자인 이존창에게 전하였다. 스승은 제자에게 특히 천주교에서 믿어야 할 중요한 신조뿐 아니라 천주교인의 본질과 그 실천방법까지 철저히 전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존창이 루도비코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을 때, 스승 권일신은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존창은 그가 얻은 신앙을 혈족과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열의에 찬 마음으로 여사울로 돌아왔다. 그는 사도적 열의에 불타 가족과 친척, 그리고 벗과 이웃들에게 천주교를 전하였고, 얼마 뒤에 그의 지식과 덕행을 보고 그를 따르는 신자수가 삼백 명에 이르렀다. 이로써 저 유명한 내포 천주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존창에 의해 이루어진 내포 천주교회는 한국 복음선교의 효시가 되는 명례방 집회 다음의 시자 공동체로서, 그뒤에 생긴 다른 어느 공동체보다 열심했다. 그리고 이후 백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여 한국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있었다. 이렇게 내포지방에 널리 복음을 전한 그를 우리는 '내포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

내포의 사도 이존창은 더욱 열심한 신앙심과 학구심으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이 창설된 한국 초대교회의 평신도의 임시 성사 집행기에 이승훈, 권일신, 유항검과 함께 평신도 임시 성직단의 일원으로 선출되어 내포교회를 이끌었다. 그후 북경 주교로부터 성품성사를 받지 않은 채 성사와 전례를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연락을 받고 곧 중단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사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로 여전치 열성적으로 전교활동을 하면서 윤유일, 지항, 최인길 등을 도와 사제 영입운동을 전개하며 주문모 신부를 맞아들이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놀라운 전교활동에 대해 달레 신부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그는 위대한 재능에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특별한 재주까지 겸하고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려왔다. 그의 전교에 저항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그러므로 이 지방의

천주교 신자수는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신앙을 받아들이는 집안이 이제는 선비들의 집안뿐만 아니라 농부, 노동자, 서민, 빈민들까지 확대되었고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멀리서 무리를 지어왔고, 종종 다른 신자들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존창의 헌신적인 전교활동으로 예산, 아산, 면천, 당진, 해산, 서산, 덕산, 태안 등 내포지방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놀라운 활동은 결국 조정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791년 제사문제로 '잔산사건'이 일어나 윤지충, 권상연이 순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국각지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이존창도 체포되어 충청감영에서 배교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이때가 그에게는 최대의 시련이었다. 극심한 고문과 교활한 꼬임에 빠져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은 착잡하게 엇갈렸다. 그러다 쇠약해진 몸과 가물거리는 정신으로 비록 한때나마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하여 석방되었다.

이 한때의 나약함은 그에게 크나큰 아픔이었다. 이존창은 베드로 사도처럼 뉘우치며 배교에 대한 가책과 고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이곳에서 다시 전교활동을 펴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그의 형이 나서서 그를 방해했다. 어쩔 수 없이 이존창은 자신의 땀이 어린 내포교회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사시로 결심하고 홍산을 거쳐 금산에 이르러 회개의 새 삶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날의 배교를 깊이 뉘우치며 더욱 열심히 계명을 지켰고 전교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그의 눈물과 땀으로 전교한 홍산과 금산 지방에서도 박해 중에 불굴의 증거자들이 잇달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님의 집안도 이존창의 전교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는데 김대선 신부님의 할머니가 그의 조카딸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며, 12년 동안의 사목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큰 기여를 한 최양업 신부님은 그의 생질의 손자가 된다. 이처럼 그가 전교한 친인척 가운데에서 사제가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교로 입교한 한국 초대교회의 신자들에 의해 교회가 유지되었다고 할만큼 그의 활동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우의 상당수가 이존창의 전교로 입교한 교우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공헌이 지대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1785년, 한 배교자의 밀고로 포졸들이 최인길 회장의 집을 급습하여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나 천주교 신자 색출소동이 벌어졌다. 주문모 신부에게 충직하게 협력했던 이존창은 다시 체포되어 충청감영으로 연행되었고, 신문을 받고 천안으로 이송되어 이번에는 연금생활을 겪게 되었다. 6년 동안의 연금 생활은 큰 시련이었지만 그는 감사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명상을 통해 주님께 향한 신심을 더욱 깊게 하였다.

그러던 중 정조가 재위 24년 만에 승하하고 순조가 열한 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했다. 정순왕후 김계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벽파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정치권력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최초의 전국적인 박해인 신유박해를 맞게 되었다. 이때 이존창은 다시 체포되어 공주로 압송되었고 서울에서 체포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대질하기 위해 서울로 끌려가 국청에서 거둬 신문을 당하였다. 이미 한차례 뼈아픈 실수를 경험했던 이존창은 이제 순교의 열의에 불타올랐다. 스스로 충청도 지방 천주교 신자들의 지도자임을 시인하고 모진 곤장에도 의연한 모습으로 굴하지 않았다. 그는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 명도회 초대회장 정약종과 초대교회 지도자 최창현 등이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다음날인 4월 9일에 여섯 번이나 내리친 칼날 아래 치명하였다. 며칠 뒤 친지와 동료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는데 이존창의 목에는 칼자국만이 흉터로 남았을 뿐 잘린 목이 단단히 붙어 있어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내포의 사도 이존창, 그의 일생은 사도적 열성으로 불탔고, 전교 업적은 교회사의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약점을 멍에처럼 지니고 있어 한차례 배교의 아픔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더욱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 그의 삶은 잘못을 참회하는 깊이만큼 짙고 치열하였다. 이 뉘우침과 회개의 새 삶이 그를 영원한 '내포의 사도'가 되게 하고 있다. 역사는 내포를 열심한 순교자들의 못자리로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때마다 이존창은 그곳의 사도로 함께 기억될 것이다. [출처 : 김길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경향잡지, 1999년 11월호(내용 일부 수정)]

한미희 수산나